

## 이슈 분석



## 보험/연금의 연계상품 해외사례와 시사점

강성호 연구위원, 김혜란 연구원

고령화 과정에서 보험과 연금간 연계를 통한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의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한 연금연계형 상품은 드문 편임. 미국, 영국, 독일은 질병 혹은 간병에 대한 재원으로 오래전부터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이 연계되거나 특화된 상품(주계약)인 장기요양연금(The Long Term Care Annuity)을 통해 지급방식을 다양하게 하고 있음. 특히, 선진국 사례를 보면,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혼합형 상품에 연금급여가 주계약이고, 요양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비적격연금상품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연계상품이 제공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연구배경/목적) 고령화 과정에서 건강 및 노후생활에 대한 고령층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이에 따라 보험과 연금간 연계를 통한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의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음

- (욕구 다양성) 100세 도래로 고령층 연령 범위는 65세~100세까지 약 35세 격차를 보이고 있어 전기 및 후기고령층<sup>1)</sup>들의 보험상품에 대한 수요 욕구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우리나라 노인의 41.1%는 의료와 요양 등 두 가지 이상의 복합 욕구를 갖고 있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러한 복합 욕구는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sup>2)</sup>
- (새로운 전략 필요) 고령층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험상품의 개발은 전통적인 보장성 보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보장성과 저축성의 연계 등 맞춤형 상품 개발이 요구됨
  - 이와 관련하여 고령화가 앞서고 보험산업이 발달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간병보험과 연금상품의 연계, 연금 주도형 보험상품이 개발되는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질병이나 간병서비스에 대한 보험상품으로 건강보험 및 간병보험이 존재하나, 연금형의 간병보험은 드문 편이며 연금지급 조건 또한 제한적이고, 치매를 주계약으로 하는 상품에 특약 형태에 머물고 있음

1) 일반적으로 전기고령층은 65세~75세(혹은 80세), 후기고령층은 75세(혹은 80세) 이상을 의미함

2) 황도경·신영석·이윤경·최병호·김찬우·박금령·김은아(2016), 『노인 의료와 요양 서비스 수요분석 및 공급체계 다양화 연구 –공급의 통합적 연계 체계 구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품들이 주로 치매를 보장하는 보험에 연금을 특약형태로 하는 혼합형이 많으며, 중증치매일 경우에만 간병생활자금을 연금형태로 지급하고 있음
  - (현황) 신한생명, 흥국생명, 흥국화재, 메리츠화재 등에서 판매하는 치매간병보험은 매월 지급하는 간병생활자금을 특약형태로 판매되고 있음
  - (한계) 특히 생명보험과 우체국보험의 경우 종신으로 간병생활자금을 지급하는 상품들도 있다는 점에서 수급자의 노후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도입이 일천하고 중증치매 등에 한해서 특약형 형태로 연금급여가 제공된다는 한계가 있음<sup>3)</sup>

<표 1> 국내의 치매간병보험 상품 사례 및 특징

구분		특징
보험회사	상품	
신한생명	(무)신한간병비받는 간편한치매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치매 진단금 및 중증치매종신간병비 (매월 100만 원씩 최초 60회 보증지급)
흥국생명	(무)가족사랑치매간병보험	치매 진단금 및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진단확정일로부터 매년 생존 시 매월 100만 원씩 최초 36회 보증지급)
흥국화재	(무)착한가격간편치매보험	치매 진단금 및 중증치매진단비 (50만 원씩 5년간 매월 지급)
메리츠화재	(무)간편한치매간병보험	치매 진단금 및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50만 원씩 5년간 매월지급)
현대해상	(무)간단하고편리한치매간병보험	치매진단금
우체국	(무)우체국치매간병보험	치매치료보험금 및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진단확정일로부터 매년 생존 시 매월 60만 원씩 최초24개월 보증지급)

주: 2019년 5월 기준으로 생명보험의 경우 신한생명(12종), 흥국생명(7종)이, 손해보험의 경우 현대해상(14종), 메리츠화재

(8종)가 가장 많은 치매간병보험 수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정리함

자료: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 공시실

■ (선진국) 고령사회를 먼저 경험하고 있는 미국, 영국, 독일<sup>4)</sup>은 질병 혹은 간병에 대한 재원으로 이미 상당히 오래전부터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이 연계되거나 연금급여가 주계약인 특화형 연금상품을 다양하게 공급하고 있음

- 미국과 영국은 장기요양이나 치명적 질병에 특화된 연금(The Long Term Care Annuity)이나 질병보험과 연금이 혼합된 하이브리드형 상품의 공급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sup>5)</sup><sup>6)</sup>
- 독일은 노년기 치료나 간병 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병수당보험, 간병보험(케어보험)이 있으며,

3) 흥국생명 (무)가족사랑치매간병보험은 2018년 10월에 출시되었으며, 종신생활비 지급을 위한 조건으로 중증치매(CDR 3점 이상)를 진단받고 최소 3년(36회), 최대 180회(15년)까지 보장함. 신한생명 (무)신한간병비받는 간편한치매보험도 2019년 2월에 출시되었으며, 종신생활비 지급을 위한 조건으로 중증치매(CDR 3점 이상)를 진단받고 최소 5년(60회) 지급보장하고 종신수급이 가능함

4) 전체 인구대비 75세 이상 고령자인구는 미국 6.9%, 영국 8.7%, 독일 11.4%로 우리나라 6.7%에 비해 높음(2020년 기준).

5) <https://longtermcareinsurancepartner.com/blog/using-annuities-to-pay-for-long-term-care>

6) <https://www.ltcinsuranceconsultants.com/long-term-care-annuity/>

여기에 연금형태로 급여가 제공되는 간병연금보험이 공급되고 있음<sup>7)</sup>

- (미국) 미국에서는 연금 특화형 장기요양연금(The Long Term Care Annuity)<sup>8)</sup>이 판매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양비용에 충당할 경우 비적격 연금상품일지라도 세제혜택이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상품이 있음

- (특징) 장기요양연금의 특징으로 장기요양과 연금의 혼합형으로 설계되며, 요양비용으로 인출하는 연금에 대해서는 비적격연금상품일지라도 세제혜택이 주어짐
  - 또한 연령, 건강, 장기요양수급으로 인해 전통적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가입이 허용되며, 장기요양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원금의 100%가 환급되는 경우도 있음<sup>9)</sup>

〈표 2〉 미국의 장기요양연금(Hybrid LTC Annuity)의 특징

구분	특징
보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요양연금은 장기요양과 연금의 혼합형이고, 전통적 장기요양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일정하여 보험료 증가에 대한 부담이 적음</li> </ul>
세제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요양비용으로 인출하는 연금은 세제혜택이 있으며(Tax-free Annuity Withdrawals), 세제혜택 정도는 상품과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름</li> <li>- 2006년 연금법(Pension Protection Act)에서 도입되었으며, 적격요양비용(Qualified Long Term Care Expenses)을 지불해주는 연금은 비적격연금상품일지라도 세제혜택이 제공됨</li> </ul>
건강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회사마다 다소 조건이 다를 수 있으나, 장기요양연금은 전통적 장기요양보험 상품에 비해 일반적으로 가입 시 건강요건이 까다롭지 않음(Easier Health Underwriting)</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적 장기요양보험 상품과 달리 장기요양연금에 납부된 보험료는 장기요양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환급됨</li> </ul>

자료: <https://www.ltcinsuranceconsultants.com/long-term-care-annuity/>; <https://longtermcareinsurancepartner.com/blog/using-annuities-to-pay-for-long-term-care>

- (상품 사례) 미국의 대표적 장기요양연금 상품으로 Global Atlantic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ForeCare와 New York Life가 판매하는 Asset Flex가 있음
  - ForeCare는 총보험료(Deposit) \$75,000를 납부하게 되면 수급 시 6년 동안 장기요양급여(Long Term Care Benefits)로 \$225,000를 수급함<sup>10)</sup><sup>11)</sup>
  - Asset Flex는 생명보험급여(life insurance benefits)를 모두 소진하면 장기요양수급자(LTC rider)를 위해 추가급여(Extension of Benefits: EOB)를 제공함<sup>12)</sup>

7) <https://www.pflege.de/pflegekasse-pflegefinanzierung/pflegeversicherung/pflegevorsorge/pflegezusatzversicherung/>

8) 장기요양연금은 크게 즉시연금(Immediate Annuity)과 거치장기요양연금(Deferred Long-term Care Annuity)으로 구분되며(<https://longtermcare.acl.gov/costs-how-to-pay/paying-privately/annuities.html>)

9) <https://www.ltcinsuranceconsultants.com/long-term-care-annuity/>

10) <https://longtermcareinsurancepartner.com/blog/using-annuities-to-pay-for-long-term-care>

11) file:///C/Users/SAMSUNG/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IE/13WFZE7W/HAS037-1%205-16%20ForeCare%20Brochure.pdf

12) 추가적으로 2년 혹은 4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며, 일반적으로 60세 가입자가 10만\$를 적립하면 생명보험급여(Life Insurance Benefits)로 15만\$를 지급받거나 장기요양급여(Long Term Care Benefits)로 45만\$을 수급하게 됨(<https://longtermcareinsurancepartner.com/blog/new-york-life-asset-flex-review>)

- (실적) 2012년부터 전통적인 장기요양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독립형 장기요양보험 상품의 판매가 정체되고 하이브리드형 상품이 두각을 나타냄<sup>13)</sup>
  - 생명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연금보험과 장기요양보험과 같이 혼합형(하이브리드형)<sup>14)</sup> 보험상품의 판매액은 2017년에 40억 달러 이상으로 급증함
- (영국) 미국과 유사한 장기요양비용을 위한 특화형 연금상품을 공급하고 있으며,<sup>15)</sup> 연금수령에 있어 조건부 세제혜택 및 조기사망 시 환불보증 등이 있음
- (특징) 영국 즉시요양연금(Immediate Care Plan)은 공식(요양기관) 및 비공식 기관(자택)에서 받는 모든 요양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으며, 조기 사망 시 납입금에 대한 보호장치(자산보호)가 있음
  - 보험금을 요양기관에 직접 요양급여로 지급할 경우에는 면세되나(Tax-free), 재택서비스 이용 시에는 과세됨<sup>16)</sup>
  -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일반적으로 유족에게 적립금이 반환되지는 않으나(계약방식에 따라 조정할 수는 있음), 조기 사망 시 투자금의 75%(Just 보험회사)를 보장받을 수 있음.

〈표 3〉 영국 즉시요양연금(Immediate Care Plan)의 특징

구분	특징
대상자	- 가입자 중 일반적으로 60세 이상자에게 수급자격이 주어지며, 공식적 요양기관이나 비공식적 재택서비스를 받는 경우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음
보험료	- 연령 및 건강상태, 그리고 요양시설 및 요양서비스 공급자가 누구나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짐
세제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즉시요양연금 급여액은 요양기관에 직접 지급될 경우에는 세제혜택이 있음(Tax-free)</li> <li>- 재택서비스 이용 시 비공식적 서비스 공급자에게 급여액이 직접 지급될 경우라도 생명연금상품(Life Annuities)에 대한 것과 동일하게 과세됨</li> </ul>
건강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이 좋지 못하고 기대여명이 짧으면 연금상품의 가격은 낮아짐<sup>17)</sup></li> <li>- 조기사망시 가입보험료에 대한 보호장치로 자산보호(Capital Protection) 시스템이 있지만, 이를 활용할수록 요양연금의 구입가격은 증가하게 됨</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금보험기구(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에 의해 보호됨</li> </ul>

자료: <https://ukcareguide.co.uk/immediate-care-annuity/>

- (상품 사례) 즉시요양연금(Immediate Care Plan)을 취급하는 보험회사는 Aviva와 Just이며 금융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의 규제를 받음

13) <https://longtermcareinsurancepartner.com/blog/using-annuities-to-pay-for-long-term-care>

14) <https://longtermcareinsurancepartner.com/long-term-care-insurance/traditional-or-hybrid-long-term-care-life-insurance-policies>

15) 즉시요양연금(Immediate Care Plan)과 연기요양연금(Deferred Care Plan)이 있음, <https://www.abi.org.uk/products-and-issues/choosing-the-right-insurance/long-term-care/immediate-needs-annuities/>; <https://ukcareguide.co.uk/immediate-care-annuity/>

16) 연금급여에 대한 과세 수준은 일반 생명연금상품(Life Annuities)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

17) <https://www.moneyadviceservice.org.uk/en/articles/immediate-needs-annuity#how-an-immediate-needs-annuity-works>

- Just 보험회사의 즉시요양연금(거치요양연금 포함)의 보험료는 최소 £5,000이며, 가입 후 6개월 이내 사망 시 환불(Money Back Guarantee)이 가능하고 또한 자산보호(Capital Protection) 시스템에 의해 조기사망 시 투자금의 75%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음<sup>18)</sup>

■ (독일) 독일에서는 노년기의 치료 또는 간병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간병수당보험, 간병보험(케어보험), 간병연금보험 등 다양하며 특히 간병연금보험은 연금특화형이라는 특징이 있음<sup>19)</sup>

- 연금형태로 지급되는 간병연금보험은 일정기간 혹은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는 간병수당보험과 간병보험(케어보험)과 비교할 때 간병생활자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노후생활보장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음<sup>20)</sup>
- 간병연금보험은 생명연금처럼 최소 금액을 보장하며, 일상생활능력 기준으로 구분된 5개의 요양등급에 따라 보험 가입 시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정해진 월별 금액을 연금(일시금 가능)으로 지급함
  -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보험금 수준이 결정되고 간병인의 사용 여부는 피보험자가 결정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에는 친족에게 보험금의 일부가 지급될 수 있음

■ (시사점) 고령층의 노후생활 욕구가 다양화 되고 있으므로 치매간병보험 등 고령층 대상 보험상품에 연금형태로 급여를 지급하는 혼합형 혹은 특화상품(주계약)을 개발하고, 또한 지급방식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노령층 맞춤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치매간병서비스 대상자인 후기고령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고려할 때 치매간병 재원을 제공하는 특화형 연금상품 개발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연금형태의 지급방식이 주계약이 되는 혼합형 간병보험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간병보험과 주택연금을 연계하여 보험상품을 개발할 경우 전체 응답자의 71.0%가 해당 상품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우리나라의 치매환자에 따른 간병시장 확대가 2018년에서 2050년까지(32년 동안) 4배 수준으로 커질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sup>21)</sup>
- 이를 위해 정부는 장기요양연금 등 관련 보험상품의 공급과 수요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세제혜택, 보조금 정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kiri**

18) <https://www.justadviser.com/products/care-funding/product-features/>

19) <https://www.pflege.de/pflegekasse-pflegefinanzierung/pflegeversicherung/pflegevorsorge/pflegezusatzversicherung/>  
20) 간병수당보험은 일정기간 일일 수당형태로 지급되고 요양등급에 따라 수당의 차이가 있으며, 간병보험(케어보험)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외래 또는 입원에 따라 발생한 비용 중 공적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용을 보장하는 성격임

21) 강성호·김혜란(2019),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현황과 보험회사의 역할 제고 방향』, 보험연구원